

## EL PRIMERO(엘 프리메로) 50주년

50년간의 성공을 회고하다

### 제2장:

#### 1970년 - 1979년: 커다란 비밀

1970년대의 엘 프리메로의 운명을 이해하려면 엘 프리메로 탄생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1958년, 제라르 보에르(Gérard Bauer)가 스위스시계산업연합의 회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시계산업 출신은 아니었지만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 1948년 미국에서부터 발전하기 시작하던 전자공학이 시계산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따라서 그는 미국 브랜드 부로바가 사상 최초의 360Hz 회전 포크로 시계를 조정하는 Accutron(아큐트론)을 출시한 해에 스위스 시계제조사들을 설득하여 함께 시계전자공학센터(Centre Electronique Horloger)를 설립하도록 하였다. 1962년 1월 20일, 제너럴 일렉트릭 출신의 Roger Wellinger(로저 웰링거)를 수장으로 시계전자공학센터가 설립되었다.

쿼츠 연구는 극비리에 진행되었다. "Beta(베타)"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는 1967년 8월에 완성되었다. 같은 해 11월 "Beta 2(베타 2)" 모델 10개가 뉴샤텔 관측소가 개최한 크로노미터 대회에 출품되어 세이코 모델들을 제치고 1위에서 10위까지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세이코는 시장 출시에 있어서는 스위스 회사들을 눌렀는데, 최초의 쿼츠 시계 Astron-35 SQ(아스트론-35 SQ)를 엘 프리메로 크로노그래프 출시 몇 달 후인 1969년 크리스마스에 출시하였다. 1970년, 16개의 스위스 브랜드가 베타 21 무브먼트 장착 쿼츠 시계 시판을 위한 컨소시엄을 결성하였다. 제니스 역시 이 컨소시엄에 참여하였다. 모토롤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내셔널 세미컨덕터 등 미국 회사들도 스위스 회사들에 합류했지만, 일본의 세이코와 시티즌을 따라잡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엘 프리메로에게 어떤 미래가 있었을까? 엘 프리메로가 처한 가장 큰 위험은 내부로부터 발생했다. 1971년 5월 28일, 원래 라디오를 제작하다가 텔레비전 제작으로 사업 영역을 넓힌 시카고 기반의 제조사였던 제니스 라디오 컴퍼니(Zenith Radio Corporation)가 회사를 인수하였다. 1972년 6월 21일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지주회사인 MZM(몬디아 제니스 모바도 - Mondia Zenith Movado)가 해체되고 제니스 타임 주식회사(Zenith Time SA)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 이후 제니스의 미래는 전적으로 미국 이사들의 손에 달려 있게 되었다.

그 당시 엘 프리메로 무브먼트는 여전히 공방의 카탈로그에 존재했지만 그다지 잘 팔리지는 않았다. 쿼츠와 경쟁하다 보니 오토매틱 매커니즘은 더 이상 실적이 좋지 않았다. 그 결과 베타 21 칼리버가 장착된 모델들과 기이하게 얇은 오버사이즈 케이스를 가진, 놀라운 디자인의 엘 프리메로 장착 제니스 모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최초의 쿼츠 무브먼트들은 부피가 커서 대형 케이스를 필요로 했고, 디자인으로 이를 보완하였다. 전자시계 케이스에서 영감을 얻어 제니스는 적절한 해답을 찾았다. 어쨌든 인간이 달에 가는 시대였던 것이다! SF 작가 로버트 A. 하인라인(Robert A. Heinlein)이 1961년 발표한 <낯선 땅 이방인(Stranger in a Strange Land)>에서 묘사한 대로 최초의 화성 원정대도 곧 가능하리라 생각했다.

당시의 디자인은 그 이전 시대처럼 기능에 기반한 미학을 추구하지 않았다. 1970년대에는 형태가 반드시 기능을 따를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엘 프리메로의 사이즈 자체는 그대로인데도 이 무브먼트를 장착한 당시의 시계들이 내장 엔진보다 훨씬 더 큰 모델로 만들어졌던 것이다. 바로 미래지향적이고 우주를 내다보는 디자인이었다. "현대 사회를 위한 표준화의 근간으로 작용했던 물리적 법칙의 영속성, 시간을 뛰어넘는 불변의 성과들을 팝 문화 이데올로기가 흔들었다,"라고 알렉산드라 미달은 저서 <한 분야의 역사 개론(Introduction à l'histoire d'une discipline)>에서 말한다. 1970년대에는 신기술로 다른 형태들을 만드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팝 디자인"이 대두되었다. 제품번호 AH 781의 엘 프리메로 케이스처럼 둥글고 두꺼운 형태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TV 화면을 연상시키는 독특한 디자인의 엘 프리메로 모델이 그 뒤를 이었다. 이 당시 가정에서 TV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졌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다. 엘 프리메로가 처음 출시될 무렵에는 TV 채널이 단 하나뿐이었고 영상도 흑백이었다. 1970년대에는 칼라 TV를 시청하기 시작하면서, 거실에 앉아서 바깥의 거대한 세상을 보는 창이 생기게 되었다. 이는 새로운 정복의 방식이었다.

1974년, 총괄적인 단절이 시작되었다. 제니스의 생산이 둔화되기 시작하였고, 카탈로그에 새로운 엘 프리메로 디자인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았다. 미국 이사들은 기계식 워치메이킹에 등을 돌리고 쿼츠를 신봉했다. 워치메이킹의 위기가 한창이던 1975년, 미국 이사들은 기계식 시계제작을 중단하기 결정했고, 1976년에는 무브먼트 제작에 사용되던 공구와 기계들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남은 엘 프리메로는 저가에 처분했고, 회수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폐기처분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이때, 엘 프리메로 무브먼트를 구조하고, 이를 통해 제니스 공방을 구조한 이가 등장한다. 그의 이름은 샤를 베르모(Charles Vermot)였다.

샤를 베르모는 4번 공방의 책임자로, 워치메이킹의 고용이 반으로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기계식 워치메이킹에 미래가 있다고 믿었다. 그는 신념이 너무나 확고했기에 결정을 번복해 달라고 미국 경영진에 서신을 보내기도 했다. "진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는 다양한 사이클을 거치곤 했습니다. 오토매틱 메커니컬 크로노그래프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오산입니다. 따라서 저는 귀사가 세계의 유행이 변하면 유리한 입장에 서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라고 그는 썼다. 그는 엘 프리메로 제작에 필요한 모든 공구들을 작은 공방에 보관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그의 요청은 승인되지 않았다.

4번 공방의 책임자 샤를 베르모는 경영진의 지시를 어기고 극비리에 엘 프리메로 제작에 필요한 공구들을 보존하겠다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다. 세계 유일의 워치메이킹 전문성이 사라지는 것이 실직보다 더 두려워,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를 보존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이다. 제니스의 프레스 제작 책임자였던 형 모리스 베르모(Maurice Vermot)가 그를 도왔다. 제일 먼저 할 일은 샤를 베르모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던 엘 프리메로 무브먼트 제작용 프레스, 캠, 작업 도면, 절삭 공구, 제작 도면 등의 설비를 안전하게 보관할 장소를 찾는 것이었다. 제니스 공방에는 18개의 건물이 있었는데 그 중 단 한 건물만 다른 건물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그곳이 최적의 장소였다.

상부의 지시를 어기는 행위였으므로 구조 작업 중 현장범으로 발각되어서는 절대 안됐다. 따라서 그는 건물 뒤의 사람이 다니지 않는 통로로 공구를 옮긴 다음 밤을 틈타 작업했다. 오늘날의 보안 시스템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 하겠다. 당시에라도 사실 시간기록계는 많았지만, 샤를 베르모는 공방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 공방장이었기 때문에 회사의 신뢰를 받는 지위였던 것이다.

오늘날, 다락으로 향하는 52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형과 함께 이 설비들을 옮기던 샤를 베르모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또한 발각될까봐 매우 두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샤를 베르모는 자신의 신념을 위해 투쟁했다. 미래를 믿고 현재의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으며, 자신의 신념에서 힘과 용기를 얻었다. 그는 모두 150여 개의 프레스와 소형 공구 및 캠들을 보존하는 데 성공했다. 이 프레스들이 없었다면 엘 프리메로를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공구들은 무브먼트에 맞춰 특수 설계되므로 영엄비밀이기 때문이다.

프레스는 관리만 잘 한다면 부품처럼 20년에서 30년 정도 쓸 수 있다. 당시 프레스 한 대의 가격이 40,000스위스 프랑이었다. 미국 이사들이 지시한대로 이 설비를 모두 폐기했다면, 이 제작 노하우가 사라졌다면, 샤를 베르모가 숨긴 모든 기계들을 다시 재현하는데 필요한 투자액은 700만 프랑에 달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러한 거금을 투자해 생산을 재개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제니스는 오늘날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설비를 저장한 후 샤를 베르모는 다락의 저장장소를 벽으로 막아서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게 했다. 자신의 안전을 걸고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던 샤를 베르모는 엘 프리메로의 미래를 믿었다. 그 미래에 자신은 참여하지 못할지라도.



1976년, 과거의 제니스 공장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직원이 대폭 줄었고, 공방에서 제작되는 시계에는 ETA나 시티즌 쿼츠 무브먼트가 장착되었다. 몇 개 안되는 기계식 시계에도 ETA 무브먼트가 장착되었다. 제니스는 더 이상 수익을 내지 못했으며, 미국 이사들은 제니스를 매각하고자 했다. 따라서 1978년 제니스 라디오 컴퍼니는 공작기계 및 워치메이킹 부문 전문사인 디시(Dixi)를 소유한 폴 카스텔라(Paul Castella)와 다른 두 개의 스위스 제작사들이 결성한 컨소시엄에 제니스시계주식회사(Zenith Watches SA)를 매각했다. 폴 카스텔라는 르 로클에서 매우 유명한 인간미 넘치는 사람이었는데, 경제적 타격을 심하게 입은 이 지방에 대해 매우 걱정을 했다. 제니스가 아직 구조된 것은 아니지만, 드디어 워치메이킹에 대한 지식과 애정을 가진 소유주를 만난 것이다. 그는 스위스의 산업 및 시계제작 전통을 지닌 제니스 공방을 구조하겠다고 결심했다.